

<三仙記> 研究

- 敍事構造와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

문범두*

- I. 머리말
- II. 素材의 受容과 構成的 展開
- III. 愛情葛藤의 複合的 性格과 意味
- IV. 善惡對立의 樣相과 作家意識
- V. 맺음말

【요약】

<三仙記>는 韓契형 소설이 유형변이 과정에서 남녀간 애정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특히 선행 작품에 비해 후반부의 서사적 확대가 두드러진다. 즉,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우리의 애정 주제 고소설과 구조적 동질성을 지닌다.

<삼선기>에서의 내적 갈등은 주인공 이춘풍의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이춘풍의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은 애정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중성은 조선 후기 변혁기에 있어서 문인지배층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학문의 연찬이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는 放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작품에서 애정의 외적 위기는 敎坊이라는 실제적인 상업공간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은 윤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대립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우선, 양반 계층 역시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당대 사회의 일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부정적 인물의 주인공에 대한 모해는 전환기의 상행위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이권다툼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외적 갈등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의해 극복되는 설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후기 변혁기에 양반계층이 지향하고자 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와 상업자본주의의 대두로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세적 가치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 머리말

<三仙記>는 꽤 흥미로운 소설이다.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짜임새가 있을 뿐 아니라,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견인하는 사건 설정이 뛰어나다. 그림을 보는 듯한 장면 묘사와 작중 인물의 미세한 심리적 움직임도 포착하는 성격 창조도 예사롭지 않고, 자못 격의를 갖춘 文飾에다 市井의 걸쭉한 肉談까지 섞어 자재로 구사하는 문체적 역량도 돋보인다. 조선시대 작품 중 수작으로 꼽은 앞선 논자의 평가가 무색치 않

다.1) 더구나, 이러한 소설 기교적 성취 위에도 전환기 사회 의식의 편린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 소설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삼선기>는 소재를 중심으로 볼 때 毀節型 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癡絶형 소설은 성적 경직성을 지닌 양반 출신의 주인공을 그의 친구 등이 癡絶음모자가 되어, 주로 癡絶공모자로서 역할하는 기녀와 함께 癡絶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시키는 이야기를 지닌 一群의 소설을 말한다.2) <鍾玉傳> <烏有蘭傳> 등 이런 유형의 작품은 조선 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고, <裊裊將歌>와 같은 판소리로도 歌唱되었음을 볼 때 상당한 대중적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3)

<삼선기>는 그동안 다각도로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위 癡絶형 소설이라는 유형론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4) 유형군에 속하는 작품에 대한 개별 논의는 대개 癡絶 실행 과정에 드러나는 풍

1)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敎學硏究社, 1983, 702쪽
 2) 이 유형의 명칭은 ‘癡絶형 소설’, ‘남성癡絶형 소설’ ‘癡絶소설’ ‘배비장전 유형 소설’ 등 여러 형태로 불린다. 큰 차이가 없어 여기서는 ‘癡絶형 소설’로 통일한다.
 3) 癡絶형 소설에 드는 작품으로는 대개 다음을 든다. <丁香傳>, <鍾玉傳>, <烏有蘭傳>, <裊裊將傳>, <芝峯傳>, <三仙記>. 余世柱 교수는 여기에 <柳綠傳> 한 편을 더 보태고 있다.(余世柱, 「朝鮮朝 男性毀節型 小說의 形成과 變異樣相 硏究」, 啓明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4) <三仙記>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李石來, 「<三仙記> 硏究」, 『誠心女大論文集』10, 1973; 金鍾澈, 「<裊裊將傳> 類型의 小說 硏究」, 『관악어문연구』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 『문학과 언어』7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6;李文奎, 「<三仙記>硏究」, 『先淸語文』16·17合輯,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88; 박일용, 「조선후기 癡絶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上)」, 『한국학보』제51집, 1988; 박일용, 「조선후기 癡絶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한국학보』제52집, 1988; 沈致烈, 「<三仙記> 硏究」, 『성신어문학』제3호, 성신어문학연구회, 1990; 李尙九, 「<三仙記>硏究」, 『어문논집』29, 민족어문학회, 1990; 余世柱, 앞의 논문.

자적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삼선기> 또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삼선기>는 조선시대 문인상층 사회가 지닌 부조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풍자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을 끌었다.⁵⁾

기존의 논의들은 주인공인 도학자 李春風을 중세 도덕주의의 전형화된 인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이춘풍은 마땅히 唾棄되어야 할 중세적 가치의 형상이자, 구시대적 폐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인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삼선기>는 이춘풍의 이러한 도학자적 면모에 대한 풍자를 미학적 중심에 두면서, 이춘풍으로 대변되는 중세적 가치체계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에 본 바와 같은 기존 논의의 결론에 대해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그것은 주인공인 도학자 이춘풍이 누리는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기생의 모갑이로 전락하여 오입속이 능통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방의 풍속을 순화시키는 등, 그 역할이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의 이해는 서사구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체계를 어떻게 적의하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일부 삽화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전체로 확대한다든가, 중요한 소설적 요소를 자의적으로 제외하고 해석한다든가 한다면 주제적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

5) 이 작품의 풍자적 성격은 김기동 교수가 처음 제기했는데(김기동, 앞의 책) 이석래 교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이 교수는 풍자적 의도를 주로 작품의 전반부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춘풍에 대한 활랑패의 봉욕 장면에서 찾으면서, 이를 ‘봉건적 번리, 계급적 질곡과 문반의 압제’에 대한 피압서민들의 ‘분원과 통매’라고 하였다.(앞의 논문, 74쪽) 이러한 작품 해석의 태도는 이후 연구자들에게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위에서, 전체 구성을 일관하는 서사구조적 특성을 살피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이 전환기 사회에 대한 작가적 문제의식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작품의 의미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범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삼선기>의 작품적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I. 素材의 受容과 構成的 展開

작가의 궁극적 주제의식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의 서사 구조를 통해서 구현되는 의미체계를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선기>는 휘절형 소설로 유형화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심 소재는 동일 유형의 작품들이 그렇듯이 주인공의 휘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유형의 선행 작품에 비해 상당한 서사적 확장이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휘절형 소설의 이야기구성과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이 결구되어 있다. 따라서 휘절화소를 포함하여 전체의 이야기 구성을 일관하는 서사구조적 성격을 다시 조망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기존의 연구에서 <삼선기>의 구성 원리를 이춘풍의 삶의 변화 과정에서 찾은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라 생각된다.⁶⁾ 사건의 전개가 남주인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휘절 후의 사건에 대한 구성상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 점도 이러한 논의의

6) 이원수, 앞의 논문, 126쪽

성과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역시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주인공인 두 기녀의 작품 내적 역할과 그 의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두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이 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구성상 특성에서 볼 때 한 쪽 당사자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은 문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구성을 이춘풍 한 사람의 행적을 좇는 방향에서 파악하지 않고, 사건 전개 중심이 되는 인물들 - 두 기녀와 이춘풍 -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절형 소설은 이야기 결미내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작품군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회절주모자의 계획과 기녀의 공모에 의한 회절모의의 실행이 주인공의 性的 僞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회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동일하나 회절 후에는 회절실행자인 기녀와 애정적 결합을 이루는 경우이다. <삼선기>를 결미 형식으로만 본다면 유형군에서도 <종옥전>이나 <오유란전>과 같이 後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트릭에 의해 경직된 성 관념이 파괴된 남주인공이 이를 주도한 기녀와 애정적 결합을 이루는 내용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선기>는 후자의 작품들과도 분명한 구성상의 차이를 지닌다. 즉, 이 작품은 여느 회절형 소설처럼 회절모의의 실행이 끝난 직후에 종결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확대된 뒷부분의 敍事의 양도 앞부분에 비해서 적지 않다. 말하자면, <삼선기>에서 회절과정은 중요한 모티프로 기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구성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설의 기본적 구조가 소위 회절유형의 소설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구조적 전형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선 <삼선기>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 만남을 갖는 설정 자체부터가 회절유형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선행 작품들에서

기녀들은 주인공의 친구 등이 수행하는 궤절음모에 공모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의 기녀는 애초에 주인공에 대해 적극적인 求愛의 의지를 지녔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삼선기>에서는 두 기녀가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동기 그 자체가 애정의 성취에 있다.

평안도 너에 명기 둘이 잇스되 안쥬에 류지연이요 성천에 흥도화니
음물은 고사호고 문필이 유여호며 지조가 특출호되 이미 기싱 출신인
고로 마지 못호야 형공거행호나 항상 울울호야 사람을 구호드라 감스
슈령은 세력으로 압제호고 호화주제와 오입장이들은 로류장화로 닛도
되 엇지 항복호야 감심호리오 너히 십구세식 되도록 사람을 만느지
못호야 낭인이 의론 왈 우리 궁향에 싱장호야 문견이 널지 못호니 천
금식 드려 기안에 제명호고 경성의 올느가 마음티로 구경호리라 하
고 ...

류지연과 흥도화라는 두 기녀가 뛰어난 재주를 지녔지마는 ‘항복하여 감심’할만한 인물을 구하지 못해 항상 울적해 하다가 돈을 들여 妓案에서 이름을 빼고는 경성으로 사람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다. 그러다가 흥제원에서 활랑들에게 봉육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 이춘풍을 보고 戀心이 발동하여 자청하여 그를 궤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삼선기>에서의 궤절모의는 性的 위선을 벗기려는 음모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애정 성취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여기서의 두 기녀와 이춘풍이라는 당사자들만의 사건이 되고 동일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궤절주모자는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어느 작품들처럼 주인공이 공개적으로 봉육을 당하는 등의 비소화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짜신선의 속임수가 동원되기는 하나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려 허위적 면모가 드러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직 애정 성취를 위해 그의 경직된 사고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善意가 포함된 트릭이다.

구성을 이처럼 남녀 주인공의 애정 성취과정으로 본다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애정담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전체를 두 개의 큰 의미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두 기녀가 이상적 인물상을 갖춘 도학자 이춘풍을 발견하고 가선트릭을 써서 휘절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휘절한 이춘풍이 두 기녀와 함께 교방 사업을 벌여 그 인연을 이어가나 외부의 적대적 인물들의 계교로 이별의 고통을 겪다가 제3의 인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애정을 이루게 되는 그 뒤의 내용이다.

그런데, 남녀가 처음 만나 둘 사이에 내재하는 장애를 극복한 후 결연을 맺게 되나, 다시 외부적 적대 세력에 의해 이별이라는 위기를 겪는 이야기구조는 사실 우리 고소설에서 오랜 서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李生窺牆傳>이나 <周生傳> <崔陟傳>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들 소설에서 처음 남녀 주인공은 어느 한 쪽, 혹은 양자가 서로 연심을 느끼고 애정적 결합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 장애요인의 개입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 대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사이에 신분상의 차이나 빈부 격차와 같은 갈등 요소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일방, 또는 쌍방의 노력이 이어지는 형태다. 그런데 처음 애정을 둘러싸고 발생되었던 이런 일차적 갈등은 두 인물 내부에서 해결되게 된다. 주인공이 寢食을 물리치고 저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최종의 결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삼선기>에서는 남주인공의 도학자적 경직성으로 해서 애정을 이루려는 여주인공과 갈등을 겪게 되고, 여주인공의 가선트릭에 의한 남주인공의 휘절로 해서 애정은 성취된다. 남녀주인공간의 결연을 방해하는 장애가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어떤 요인에 있고, 그 장애의 극복이 갈등을 일으키는 人的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애정 주제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애정 소설은 이상의 일차적 갈등과 해소에 이어 외부적 적대세력에 의한 다음의 갈등을 겪는 형태의 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외부적’이라 한 것은 애정 위기를 발생시키는 적대 세력이, 처음의 결연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인적 범주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다는 뜻이다. <이생규장전>에서는 흥건적의 침입으로 처음의 결합이 파괴되고 있으며, <최척전>에서는 임진왜란이 남녀간 이별을 조장한다. <春香傳>에서는 권력층에 의한 勒婚이 처음의 신분갈등에 이은 외적 갈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쟁이나 권력층의 強壓 등 그 양상은 다양하나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남녀주인공간의 애정의 지속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공통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성의 종국적인 결미는 죽은 후의 명혼담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재합으로 마무리되든가, 아니면 다른 인물 등의 개입에 의한 낭만적 善終으로 나타난다. 이는 <삼선기>에서 주인공의 輓絶 직후 주인공과 기녀 간의 애정 성취로 작품이 마무리 되지 않고 서사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해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즉, <삼선기>에서 교방의 이권을 독식하려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주인공 남녀가 이별을 겪게 되는 점은, 내적 갈등과 그 해소 이후 다시 외부세력에 의한 애정 위기로 구성되는 우리 애정 주제 고소설이 전형적으로 갖는 서사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삼선기>의 구성은 남녀주인공의 애정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는 우리 애정 주제 고소설의 일반적인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렇다면 작품의 주제는 애정의 성취를 들

7) 본 논문에서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주인공을 둘러싼 애정 갈등의 범위와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내용이 우리 애정주제 고소설의 정형으로 인정된다면 보다

러싼 이런 내, 외적 갈등이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 극복이 어떤 지향성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소설 세계에 접근하고자 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소설의 의미구조를 작품의 내적 질서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소설 밖의 현실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삼선기>의 경우는 작품 서두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붙어있는 오룽중자 이야기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오룽중자의 인물형상은 작중주인공 이춘풍의 성격에 대한 예시적 의미를 지니는데, 작품의 서사적 전개와는 관계없는 『孟子』의 이 이야기를 덧붙인 것은 이춘풍의 성격을 소설의 의미구조 내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룽중자의 故事를 평가하는 시각에서처럼, 소설 세계 밖 현실사회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읽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선기>의 이해에 있어서 애정 갈등으로 구현되는 의미체계를 읽어내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양상과 지향이 작가의식의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이 소설의 본질에 접근하는 보다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愛情葛藤의 複合的 性格과 意味

앞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애정소설의 구성은 처음의 결연을 전후로 하여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

정밀한 용어의 사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왔다. <삼선기>에서는 주인공이 지닌 도학자적 경직성이 내적 갈등을 야기하고, 궤절을 통한 애정의 성취로 이를 극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애정 성취 후 부정적인 인물들의 개입으로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과정이 외적 갈등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처음 애정 성취를 위해 애정의 당사자들이 겪는 내적 갈등이 어떠한 소설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적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애정갈등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두 기녀가 어떤 인물을 구하고자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들은 평양에 있을 때, ‘감스 수령은 세력으로 압제하고 호화주제와 오입장이들은 로류장화로 닷토되 엇지 항복하야 감심하리오’ 라고 하였다. 즉, 이들이 찾은 인물은 감사 수령과 같은 고관대작도 아니고, 호화주제와 같은 재물이 많은 자도 아니며, 오입장이처럼 정욕이 넘치는 자도 아님을 뜻한다. 다음은 두 기녀가 경성의 기방과 만조백관의 주연에 참여하였으나 인물을 찾지 못하고 탄식하는 말이다.

즈고로 인물이 극귀하기로 몇 천년 이련에 즈도와 진평과 두목지 썬일씨가 올토다 우리 만일 문장과 인물과 처지가 당나라 리적션 갓흔 니를 엇지 못홀 지경에는 츠라리 문을 닷고 드러 안즈 문쥬금귀로 세월을 보너미 올홀가 하야...

위에서 보듯이 기녀들이 가장 최상의 인물상으로 여긴 사람은 자도와 진평과 두목지라고 했다. 모두 지모가 뛰어난 호걸이거나 문장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唐의 시인 李白을 거론하여 문장과 인물과 처지가 그만 못하다면 문을 닫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찾는 인물을 대충 말하자면, ‘호방한 성품으로 풍류를 지닌 문인재사’ 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 애정의 상대역이 되는 이춘풍의 성격은 좀 복합적

이다. 우선, 주인공 이춘풍은 성적으로 매우 경직된 사람이다. 이미 보아왔듯이 이는 성적 경직성을 깨트림으로써 주인공을 훼손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녀의 애정적 결합을 이루는 훼손형 소설의 인물 성격과 동일하다. 이춘풍은 ‘취실한지 십여 년에 내외지정을 아조’ 몰랐으며, 처남 김시랑이 ‘후사를 두지 않으면 이 또한 불효’란 말을 옳게 여겨 하룻밤 동침한 후에 겨우 그 부인이 잉태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남녀간의 자연스런 성적 접촉을 마다하는 것은 常軌를 벗어난 것이고, 그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말에 자녀 생산을 위해 마지못해 동침하는 것 역시 너무나 경직된 성 관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춘풍은 도학자적 修身에 매우 철저하다. 그는 ‘종일 꾸러 안자 경학에 잠심하여 밥 먹기를 잊고 잠을 자지 아니’하며 ‘세상의 변화를 부운 갖치 여기’면서 자기수양에만 골몰하는 인물이다. 국가주석지신의 재모를 갖추었음에도 출사를 마다하고 경학에만 잠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인물 앓가온 괴물이라’ 하였다고 했다. 전통적 윤리를 실천하는 데도 빈틈이 없다.

... 부모를 늦도록 피시지 못함을 한하여 기일을 당하면 전칠후칠을 지계하고 설음을 이기지 못하여 훼손굴립할 지경에 이르고 날마다 닭이 처음 울면 이러는 소세하고 가묘에 첩비하고 친산이 고양짜에 있으니 상거 오십리라 미월 삭망마다 성묘홀시

위의 내용들은 이춘풍이 천성이 고상하고 기상이 탁월하며, 선친의 기일을 엄숙히 지키는 효행이 뛰어남을 말하고 있다. 그의 이런 삶의 태도를 두고 ‘배안에 학자오 화식하는 부처’라 일컬어 지기도 했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기녀와 이춘풍의 애정관계는 이백과 같은 풍류 문인재사를 구하는 여주인공과 수행에 철저한 은둔도학자와의 만남이다. 우선 남주인공에게 戀心을 느끼게 되는 쪽

은 당연히 여주인공들이다. 통국의 인물을 찾는 이들이, 친산 성 못길에 다니러 가는 중 홍제원을 지나다가 활랑들에게 잡혀 온 갖 폐약한 옥설로 무수한 질욕을 당하는 다음의 이춘풍을 보게 된다.

옥갓흔 얼굴에 도화식을 썬엿고 그린 듯한 살짜에 반월 갓흔 옥륜 이 밧치엿고 돌올원만흔 턱덩에 원산갓흔 눈썹이 팔즈로 빗기엿고 두 렷흔 단봉안에 효성갓흔 광척 조요하고 단사로 썬듯흔 입살에 거문 슈염이 다문다문 낮고 섬섬옥슈는 빅공단 주머니에 폴숨을 가득 너어 복을복을 만지는 듯 동탕작약흔 턱도와 단정현양흔 풍척와 쇠락 정딕흔 기상이 천만인 중 데일이오 턱상턱하에 웃듬이라

두 기녀가 만난 이춘풍의 위와 같은 형상은 그들이 찾는 이태백과 같은 풍류 문인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봉변을 가하고자 하는 활랑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이춘풍의 정대한 풍모를 드러냄으로써 이태백 같은 인물을 찾는 두 기녀와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탕작약’하고 ‘단정현양’하며 ‘쇠락정대’한 기상은 이춘풍의 평소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남녀 두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은 이춘풍으로 하여금 고상한 풍모를 갖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마는 이는 곧 세속 세계와의 단절이나 성적 완고함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애정 성취의 갈등을 조장하는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의 내적 갈등은 상당히 흥미로운 성격을 띤다. 이춘풍의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은 애정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풍의 삶의 방식이 지니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은 이후 기녀에 의한 획절과정인 假仙트릭의 실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의미

를 지닌다. 가선으로 변장하여 이춘풍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의 도학자적 경직성을 변화시켜서 애정의 성취를 이루려는 기녀들의 계획이다. 즉 그의 삶에서 애정 성취의 장애가 되는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춘풍이 지닌 정대하고 도덕적인 품모는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은 두 기녀가 찾고 있었던 인물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조건인 만큼 애정의 성취를 위해서는 오히려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성격인 것이다.

량인의 입만 보고 아모 말도 아니하다가 다시 꾸러 안즈며 왈 도모지 학식의 공부치지 못흔 연피니 누를 원하리오 호고 묵묵히 안졌으니 엄위흔 소식과 정디흔 언식 감히 우러러 보지 못흐되 엄위흔 가온디 온공자상하야 두렵기도 그지 업고 반갑기도 한량업서 천만인의 심간을 녹일 지경이니

위는 훼손모의가 탄로 난 후 이춘풍의 모습과 기녀의 태도이다. ‘엄위한 사색’과 ‘정대한 언사’나, ‘온공자상한 모습’은 이춘풍의 도학자적 삶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녀와의 애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한 측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⁸⁾

이상의 애정갈등은 특히 도학자인 주인공의 삶의 방식을 문제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적 문제의식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애정갈등의 의미체계를 통해

8) 기존 연구에서는 프롤로그에 형성된 오릉중자의 성격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출처가 되는 『맹자』에서의 중자에 대한 판단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띤다. <삼선기>의 애정갈등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이춘풍의 성격도 양면적이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프롤로그에 표현된 오릉중자의 성격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즉 ‘중자는 턴품이 고결하야 어려서부터 공부에 유의하고’라고 한 것이나, ‘너물로 받은 거위를 게워낼 정도로 도덕적으로 곧은 성품 등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작가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면 갈등구조가 지니는 이런 특징은 사회적 차원의 판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춘풍의 삶을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할 때 그 경우 역시 양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때, 애정의 성취가 작가 의식의 지향방향을, 결연장애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춘풍의 삶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식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춘풍의 도학자적 삶의 태도는 중세기 선비들의 일반적인 처세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철리적 사색을 통하여 우주적 진리와 삶의 진실을 터득하고자 하는 조선 유학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선비를 일컬어 도학자라고 하였다. 조선 前期라면, 과란의 정치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서 道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시뻐거리조차도 될 수 없었다.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진투구를 피해 강호에 머물면서 은거하는 幽人處士들의 삶을 동경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춘풍의 이런 도학자적 삶이 애정의 장애가 된 것은, 도학자연하면서 은거하는 삶이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각별한 노력으로 얻는 학문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지도 않고 여전히 도학자적 수행을 빙자한 독선적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면 사회 변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당대적 인식으로는 매우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대적 가치 수준에서 보면, 무위도식을 일삼는 무능하고 유약한 사회적 부적응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寂然窮理함으로써 도의 본의를 천착하고자 하는 수행과정, 조선 후기에서는 ‘괴물’과 같은 별종의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여기서 홍제원 활랑들의 이춘풍에 대한 통매를 살필 필요가 있

졌다. 활랑들이 이춘풍에게 가하는 이 독설은 이춘풍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직접 드러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말에 사람을 소가 낫탄 말도 잇다 호고 사람의 몸이오 소티같이로 농스법을 가라치고 비암의 디가리오 사름의 몸으로 사람을 만이 잡아먹었다 호고 사람의 몸이오 쇼 즈지로 세상사람을 민드러드 호고 글 잘하는 선비가 오랑키 목을 울가왔다 하니 선싱은 멋치노 울가왔소으며 공즈님이 도척의게 아모 말도 못호섯다 하니 그런 성인으로 엇지 도척놈의게 휘이시며 안즈가 만이 굴머 부증이 노고 증즈가 옷시 업서 팔썩이 울근불근호고 즈로가 히진 모시도포를 입고 빌어먹었다 호고 링즈가 집신을 도척호다가 주인에 들키어 사과하얏고 도연명이 굴머죽었다 호고 주즈가 글을 너모 읽다가 눈이 멀었다 호오니 그말이 울홀진디 선싱은 공부호시와 무엇호시며 그 지경 되기를 원하는 잇가 그것시 모다 그짓말이이노 그럿치 아니코 참말이면 글 좃탈 그런 재미붓홀 쇠기즈식이 잇겟습

위 활랑들의 공격은 유학과 유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강조해서 문제 삼는 것은 문인학사들의 글 읽는 행위의 실효성이다. 유학의 祖宗인 孔子가 높은 학문에도 불구하고 도적 괴수의 언변을 당해내지 못한 일이며, 공자 제자 중 학문으로 이름이 높은 안연이 궁한함을 면하지 못하다가 요절한 것을 들고 있다. 이어지는 증자, 자로, 맹자, 도연명, 주자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그 진실성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 이 시대 활랑들의 눈으로 보아서 이들 유학의 대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구제하기는커녕 일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하잘 것 없는 인물들인 것이다. ‘그짓말이노 그럿치 아니코 참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활랑들의 다소 애매한 판단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든 없었던 당대의 가치관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보편적 진실성을 지니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결국 유학자들이 읽는 글이라는 것은 ‘넷말에 사람

을 소가 낫탄 말도 있다 하고...사람의 몸이오 쇼 즈지로 세상사람을 민드러트 하고'과 같이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것뿐이라는 전체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활랑들의 이 통매는 무변인 활랑의 발언으로 되어 있지만은 조선 사회 문인지배 계층에 대한 당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여기서 이춘풍을 조선 성리학파 유학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문인 지배계층의 관념적이고 허위적인 생활 방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위 활랑의 통매는 서사적 전개과정에서 볼 때 작가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애정의 성취 과정을 구성방식으로 하고 있는 작품의 기본 성격상, 인물 갈등 과정이 빚어내는 의미체계 내에서 드러나야 할 사회적 문제의식이 작품 문면에 생경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의 구성이 횡절형 소설의 주요모티프에 애정소설의 서사구조가 결합된 것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작가적 개입은 프롤로그를 제시한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소설의 내용을 사회적 層位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가적 의도가 구성상의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發話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⁹⁾

다음, 남녀간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이춘풍의 삶의 긍정적 측면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보자. 앞서 말했듯이 이춘풍의 삶이

9)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활랑통매 장면이 작가의 주제적 의도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그 풍자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품에서 그러한 풍자 정신이 후반부로 지속되지 못한 것을 작품적 한계로 여겼다.(김중철, 앞의 논문, 227쪽 참조) 그러나 이 작품을 애정소설의 구조 속에서 볼 때 활랑 통매 장면은 단순히 남녀주인공의 애정관계를 이어주는 계기적 사건으로 전체 의미체계 내에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 즉, 이 부분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과 관련시키는 것은 아직 선부르다고 할 수 있겠다.

갖는 사회적 차원의 판단은 단순하지가 않다. 도학자적 수행이 이백과 같은 문인재사의 풍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춘풍의 전통윤리에 입각한 수행과 실천에 대해서는 긍정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 시대라고 해도 유학자로서의 심성 수행이나 덕목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념이 전적으로 부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도학으로 수신하며 兄友弟恭하고 奉祭祀에 엄숙한 태도는 비록 조선 후기라 해도 부정되거나 비하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¹⁰⁾

이상에서 보듯 초기 내적 애정갈등에서 보이는 이춘풍의 삶의 태도가 지니는 결연상의 긍, 부정적 측면은, 조선 후기 변혁기에 있어서 문인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학문의 연찬이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전통적 가치는放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학자의 처세 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모색에 수반되는 또 다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서 다음 외적 갈등양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0)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춘풍이 지닌 도학자적 삶의 태도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 사회적인 의미를 천착하였다. 그러나 논의한 바처럼 이춘풍의 삶의 태도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품 후반부의 갈등양상을 살핀다면 이러한 이해방식은 더욱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善惡對立의 樣相과 作家意識

작품 후반부에서 이춘풍이 휘절 후 상행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천착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박일용 교수는 ‘<삼선기>에서는 허위적 관념에 대한 살아 있는 시정적 사고방식이 일차적인 주체로 등장하여, 이제는 윤리가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생활적인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다’¹¹⁾고 하였다. 또 이문규교수는 ‘<삼선기>는 당대 최고의 도학자 이춘풍의 변신과정을 통해 전통적 도덕관의 심각한 몰락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고, ‘이는 이춘풍으로 표상되는 당대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이미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¹²⁾

위의 견해들은 전통적 윤리나 도덕관이 <삼선기>에서는 더 이상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 이춘풍이 교방의 모가비로서 생활하는 장면을 전적으로 중세적 윤리의식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미 보았듯이 남녀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애정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춘풍의 도학자적 경직성에서의 탈피도 필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백과 같은 풍모를 갖기 위한 전제로써 전통가치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도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연 후 이춘풍이 비록 기생 모가비로 영락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도학적 품성은 일정하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부너 기침들과 소년공주 등이 흠향호와 교방을 창건하고 슈석으로

11) 박일용, 앞의 논문, 91쪽

12) 이문규, 앞의 논문, 606-607쪽

피서 범절과 음률을 비오되 한번도 호방한 모양은 보지 못하였고 레도에 버서는 즈를 효유하기로 부증상하 이 표준을 삼아 풍속이 일변하야 음란한 구습이 아조업고...기싱이 식로 교방에 참여하면 레물이 잇스되 하노도 즈용치 아니코 부늬에 빈민을 구체하였고...만일 음란한 형스노 요야한 거동이 잇스면 별노히 표방하야 류에 셋기지 못하게 하오시오...리서방님 내려 오신 후 즈연 부증이 쓰려 불의의 형스를 못하고 혹시 부정한 일을 하다가 관가에 엄형당함은 감수할지언정 리서방님 드르실가 붓그러하고...

위는 이춘풍이 휘절 후 평양 한복판에 관서제일루라고 이름한 교방을 두 기녀와 함께 창설하고 그가 首席이 되어 사업하는 모습이다. 이춘풍이 교방의 수석이 된 후로 기생들과 소년공자들이 그에게 음률뿐만 아니라 예도와 범절을 배우게 됨으로써 평양 내의 음란하고 부정한 舊習이 一變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휘절은 성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음률과 풍류를 갖추게 함으로써 교방수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녀와의 애정 성취에 前提가 되었던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나아가 그러한 품성은 평양 내의 풍속 순화라는 역할로 현실화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전적으로 부정된다는 앞선 논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여기에 대해 이후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이원수교수는 한량들의 봉욕을 관념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으로 이해하고 이를 작품전체의 의미와 연관시켜 박제화된 관념적 윤리규범보다 인간으로서의 현실적 삶, 그 자체를 더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¹³⁾ 나아가 여세주교수는 이를 爲己之學에 대한 治人之學을 표방한 것으로 보고, 관념주의보다는 현실 중심의 실용적 유교주의

13) 이원수, 앞의 논문, 136쪽

를 더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¹⁴⁾

혜절 이전의 이춘풍이 보이는 삶의 태도는 그야말로 개인의 수양과 덕행을 위한 것이었다. 즉 세속과 절연한 채 학문에만 전념했다는 것은 공소하고 관념적인 가치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혜절 이후는 그러한 도학적 가치가 기방세계의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여세주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위기지학에서 치인지학으로의 변모라고 할만하다. 따라서 위 두 논자들의 견해는 주인공 이춘풍의 삶의 자세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때 타당한 이해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선기>는 이춘풍과 기녀 두 사람간의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가의식을 포함하는 당대의 사회상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또 다른 차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보았듯이 이춘풍의 도학자적 삶이 전적으로 서술층위에서 부정되고 있지 않고, 또 등장인물 사이에 심각한 대립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 후기 전환기의 사회상황에 대한 소설적 수용양상에 대해서까지 관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반부의 서사세계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애정성취를 위한 외적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외부의 적대적 세력에 의해 남녀주인공의 애정적 결합이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작품에서 이춘풍과 두 기녀의 애정에 위기를 조장하는 외적 세력은 수통인 로영철과 기녀 심일경 두 인물이다. 이들은 교방의 利權과 관련하여 이춘풍과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갈등은 혜절 후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춘풍의 도덕적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음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4) 여세주, 앞의 논문, 126쪽

리춘풍이 교방 주인이 된 후로 범절이 정덕하고 형위 정직함으로 평양일편이 심복하여 풍속이 일변하니 부정헌 일을 붓그러하고 기심의 범절이 조졸하여 란잡헌 형장을 못하니 상하남녀가 표준을 삼으며 그 중에 궤악하고 간교헌 남녀는 은은히 원망하더라 그 중에 심일청이라 하는 기심이 인물은 출중하느 텃성이 음란하여 형위 부정하기로 교방에 셋기지 못하고 즈로 론박을 당하여 리춘풍을 공연히 원망하고 로영철이 쏘한 리춘풍을 쓰려 조심하되 일청과 상합하여 은근히 히홀 쏘을 두더니

위는 로영철과 심일청이 이춘풍의 전통 가치에 입각한 교방운영으로 부정한 행위로 축재할 기회가 봉쇄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춘풍을 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춘풍은 이들 남녀의 모함으로 살인의 누명을 쓰고 경상도 장기로 귀양 가게 됨으로써 남녀 주인공은 서로 이별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애정의 외적 갈등이 교방이라는 실제적인 상업공간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선악대립의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주인공 이춘풍이 교방수석이 되는 설정 자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가 교방수석이 되어 교방운영에 관한 이식 행위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 후기 교방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교방을 둘러싼 인물갈등을 특정 商行爲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轉換期에 이르러 양반 계층조차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방 운영은 애정성취의 과정이라는 서사체계 내에서 볼 때 남녀간 애정 성취의

15) 박일용, 앞의 논문, 95쪽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나아가 또 다른 애정갈등을 조장하는 소설적 사건이 된다. 즉 교방은 애정이라는 소설의 서사구조 내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그 자체를 곧바로 사회적 층위에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이춘풍 삶의 방식과 그 애정갈등의 양상을 양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갔듯이, 교방 수석으로의 이춘풍의 변신 역시 당대 양반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⁶⁾ 요컨대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 계층의식이 사회변동상과 더불어 회박해짐에 따라 하층계급의 신분상승도 가능했지마는 한편으로는 양반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가능한 일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작품에서는 사또 자체를 등에 업고 로영철과 심일경이 이춘풍에게 살인누명을 씌우고 귀양을 보내는 과정이 결구되어 있다. 이는 전환기의 상행위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모해와 이권 다툼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또 자체까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꾼 일부의 양반계층 중에는 시정의 상도덕적 타락상에 편승해 이권추구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춘풍이 교방 사업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영위하는 것은 양반들이 어떤 계기로 상행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세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후반기 이춘풍의 삶을 통하여, 전환기 시대에 삶의 방식을 달리한 양

16) 후반기 갈등의 공간을 교방에 둔 것은 이 작품이 남녀간 애정의 성취를 전체적 이야기구성으로 둔 것과 함께 통속적 소재로 소통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방이라는 특정 공간의 의미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물갈등의 양상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체계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작가의식을 짚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반계층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정 성취 후 교방 운영을 이춘풍의 일시적인 타락행위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반의 상업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반 사대부 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만만치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허생전>에서 허생의 상행위를 ‘小試’라고 하고, 궁극에 가서는 은거하고 만다는 결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환기적 의식구조의 일 측면이다. 사또 자제를 포함한 로영철 등이 벌이는 이해관계를 통한 알력에서 보여 주듯이 상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수반할 수 있다는 상층 사대부계층의 시각을 작가는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말부 주인공의 은거 역시 일부의 사회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대적 환경이라는 전시대와 다른 정치, 사회적 조건이나 물질적 가치가 우선하는 시대적 흐름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적대세력에 의한 남녀간의 이별이, 처음 두 주인공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가치 즉,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의해 극복되는 설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녀주인공의 재합은 신임 순사또 홍판서의 도입으로 가능해진다. 순사또는 이춘풍의 풍류와 도덕을 듣고는 그를 嚴治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치죄로만 그치고 오히려 연광정에 주연을 배설케 하고 이춘풍과 두 기녀가 서로 만남을 갖게 해 준다.

우리 샷또 도입 일년에 그리 온조흔신 학즈님일느니 오날일노 불진
 티 오금도 문청 쓰고 속도 썩 잘 쓰시고 오입속도 룡통흐시도다 드르
 니 리춘풍도 직상즈제요 훌룽흐 학즈로 오입에 밋그러져 그러흐다니

양반 중에 몇 알기는 두 량반이 날기로다 이러흔 일은 만고에 유전홀 일이라 헛더라

사또가 이춘풍의 내력과 풍류, 도덕을 들은 후, 이춘풍을 피리로 칼 썬우고, 홍도화를 거문고로 칼 썬우는 등 풍류로 남녀 주인공을 다스릴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백성 중에서 한 말이다. 즉, 이는 순사또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춘풍의 훼손 후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로 해서 외부적 갈등까지 극복하고 남녀간 궁극적 결합을 이루게 됨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교방을 둘러싼 이식행위는 당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상업중심의 사회적 변동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잠시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후기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물질주의 사고가 만연해 가면서 이권쟁탈을 위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었던 현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상업 교방을 둘러싼 관권과 시정상인들의 결탁과 상호 이익침탈을 위해 邪術이 동원되는 양상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에 이르러 시정의 상행위가 중세적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무제한적 이해관계로 확장, 변질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위기의식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상을 어떤 이념과 철학으로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층지배계층의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위 교방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적 갈등이 신관사또라는 도덕적 인물에 의해 극복된다는 설정은 조선후기 변혁기에 양반지배 계층이 지향하고자 했던 통치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와 상업자본주의의 대두로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학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중세적 가치라는 점을 뚜렷이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는 시장경제의 지배력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상업법적 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중세의 윤리관과 치세관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지배층의 의식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도덕주의와 윤리의식과 같은 전통적 가치의 전환기적 공효를 결코 도외시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환기에 이르러 상행위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업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직업윤리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럴 때 전통적 윤리관을 새로운 사회통제의 지배이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적 자각도 일어났음 직하기 때문이다. 이는 18세기 이후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전 받을 수 있었던 중세적 가치에 대한 전환기적 균형감의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는 서사구조적 의미체계에서 구현되는 주제는 다음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녀 간의 애정 성취는 성적인 측면을 포함한 경직성에서 벗어나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 두 사람의 애정을 방해하는 어떤 시련이라도 물리치고 궁극적인 애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작가는 당대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특히 이춘풍으로 대변되는 상층지배층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

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의 구성을 남녀 주인공의 애정 성취과정으로 본다면, 전체를 두 개의 큰 의미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남녀가 처음 만나 둘 사이에 내재하는 장애를 극복한 후 결연을 맺게 되나, 다시 외부적 적대 세력에 의해 이별이라는 위기를 겪는 이야기구조는 사실 우리 고소설에서 오랜 서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회절형 소설이 유형 변이과정에서 <종옥전>이나 <오유란전>과 같이 결미의 구성이 남녀간 애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남녀간 결연의 비중이 커지자 그 전체 구성이 자연스레 애정소설의 일반적인 서사관행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절 후의 서사적 확대도 회절유형의 틀 속에서는 파악될 수 없고, 우리 애정양식의 소설이 갖는 서사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내적 갈등은 상당히 흥미로운 성격을 띤다. 자유분방한 두 기녀와의 결연 대상인 이춘풍의 도학자적 수행과 실천은 애정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애정의 성취가 작가 의식의 지향 방향을, 장애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춘풍의 삶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내적 애정갈등에서 보이는 이춘풍의 삶의 태도가 지니는 결연상의 긍정, 부정적 측면은, 조선 후기 변혁기에 있어서 문인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학문의 연찬이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는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애정의 외적 갈등이 교방이라는 실제적인 상업공간에서 일어나

고, 또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선악대립의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 후기 교방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정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반 계층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에서 부정적 인물의 주인공에 대한 모해는 전환기의 상행위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모해와 이권다툼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또 자제까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방식을 바꾼 일부의 양반계층 중에는 시정의 상도덕적 타락상에 편승해 이권추구에만 급급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춘풍이 교방 사업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영위하도록 한 것은, 양반들의 상행위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애정 성취 후 교방 운영이 이춘풍의 일시적인 타락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반의 상업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만만치 않았음을 나타낸다.

작품에서는 외부적 적대세력에 의한 남녀간의 이별이, 처음 두 주인공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가치 즉,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의해 극복되는 설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방을 둘러싼 이식행위는 당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상업중심의 사회경제적 변동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시정의 상행위가 중세적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무제한적 이해관계로 확장, 변질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위기의식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이다. 교방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외적 갈등이 신관사또라는 도덕적 인물에 의해 극복된다는 설정은 조선 후기 변혁기에 양반계층이 제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념적 지

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와 상업자본주의의 대두로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중세적 가치라는 점을 뚜렷이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도덕주의와 윤리의식과 같은 전통적 가치의 전환기적 공효를 결코 도외시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작가의식의 궁극적 지향은, 18세기 이후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전 받을 수 있었던 중세적 가치에 대한 전환기적 균형감의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조선시대(Joseon Dynasty),
애정소설(Korean traditional love story),
훼절형 소설(Sexual corrupting type-story),
구성(Plot), 유교(Confucianism),
양반지배계층(the Dominating class in Joseon Dynasty)

참고문헌

-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敎學硏究社, 1983
金鍾澈, 「<裋裨將傳> 類型의 小說研究」, 『관악어문연구』10집,
박일용, 「조선후기 훼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上)」, 『한국학보』제51집, 1988
박일용, 「조선후기 훼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한국학보』제52집, 1988
沈致烈, 「<三仙記> 研究」, 『성신어문학』제3호, 성신어문학연구회, 1990
余世柱, 朝鮮朝 男性毀節型 小說의 形成과 變異樣相 研究, 啓明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李文奎, 「<三仙記>研究」, 『先清語文』16·17合輯,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88

李尙九, 「<三仙記>研究」, 『어문논집』29, 민족어문학회, 1990

李石來, 「<三仙記> 研究」, 『誠心女大論文集』10, 1973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 『문학과 언어』7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6

A study on <Samsungi>

- Focusing the Narrative Structure and Writer's intent -

Moon, Beom-Doo

The aim of thesis is to see the narrative structure of <Samsungi> which is a romance written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And eventually we want to know what the writer would intend to express through this structure. The plot of this story is the process of love between hero and heroines. Generally, Korean traditional love story is composed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love conflict. In this story, the hero's life style causes an internal conflict. But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also the chance that makes them fall in love each other. This double conflict means that the noble in Joseon dynasty had no ability to dominate society, and fell in a fantastic idealism. And the people of low class criticized and cursed the noble for their lack of ability and incompetence. But it also means that the society needed the value and moral conscience of Confucianism which they have maintained all the time of Joseon dynasty.

After the accomplishment of love, the hero falls down the boss of the biggest saloon in Pyeongyang. But he still obeys the moral and ethical life attitude. External conflict is occurred by opponents who want to deprive him of the profit of the saloon business. Through these facts of external conflict, we know the society had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t that time. We know the fact that the noble were engaged in commercial business which they have regarded it as humble job. But there was not the appropriate moral control of the commercial business at Joseon latter era. Therefore the era was full of the struggle and conspiracy for possessing profits exclusively. This make us know the fact that the society needed traditional value and ethic for preventing the moral corruption of commercial business.

문범두

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현대성우트리펠리스 B-301

전화번호: 017-584-3232

전자우편: bdmooon@jinju.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9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